

사설

한해를 돌아보고 참회하자

하루가 지나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거듭하여 한 해가 지나간다.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가졌는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적지 않다. 후회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새 천년을 맞으며 큰 꿈에 부풀었던 순간이 어찌 같건만 덧없이 흘러간 1년을 돌아보며 누워쳐보는 시간을 갖자. 100미터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옹크리고 있듯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과연 불자로서의 신앙심이 얼마나 돈독했으며, 신앙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으며 불사는 몇 권이나 읽었는지, 보살행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남을 위하여 무엇을 베풀었는지, 내 노릇은 얼마나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인내하여 감지있는 자신을 지켰으며, 과연 계율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으며, 마음의 선정으로 부처님의 지혜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점검해 보자.

출가승려로서의 본분을, 재가신도로서의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했는지 돌아보자. 각 종단에서는 교육, 포교, 역경의 3대 사업에 얼마나 정진했는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화합의 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던 사면은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새해의 과제로 남기고 맡았다. 신도로서의 의무와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면 교세확장은 기대할 수도 없고, 불교의 교리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불교교양대학이 늘어나 신도교육과 포교사 양성에 약간의 고무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으나 연중 논란이 되어 왔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발전방향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포교에 있어서는 군승수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가르침에 비추어보니 우리 모습이 참으로 왜소하다.

가장 괄목할 만한 사업은 고려대 장경연구소가 우리 민족의 보배인 고려대장경을 전산화하여 색인을 갖춘 CD로 제작하여 최첨단 방법으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한 출가 수행승의 발원으로 이처럼 거룩한 불사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동창자의 인연도 찬탄해야겠지만, 지성껏 발원하면 불사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출가종단과 재가신행단체가 모두 자기를 비판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스스로 재검을 해보고 새해를 맞을 수 있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시급한 승가의 도덕성 회복

조계종 총무원의 주요 소임자가 드바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민해스님의 일이 것은 백담사의 주지가 대마초를 피워 구속됐다. 주지 자리를 놓고 싸우다 살인교사까지 했다. 소식이 엮어졌는데, 이제 때죽에 히로병을 다 마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승가를 틀먹이며 도박이니, 살인교사니 하는 불경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민망할 따름이다.

2년 전 칼럼조사연구소에서 실시했던 '한국인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를 보면 종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종교단체가 참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있고 (불교인 75.5%, 개신교인 64.8%, 천주교인 79.9%, 무종교인 86.5%),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도 주지 못한다(불교 60.0%, 개신교 51.4%, 천주교 57.8%, 무종교 68.7%)고 답했다. 이 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불교인들과 무종교인들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라면 포교는 물론 불교인들의 행위를 '입바른 소리' 쪽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든다.

물론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룰 수 있다. 인연(天)의 스승인 부처님이 아니고서야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종단과 사찰의 주요한 소임자라면,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욱이 도덕성에 흠결을 지닌 스님에게 총무원의 소임을 맡기고, 주요 사찰의 주지를 하는 것을 보면, 종단이 도덕성에 있어서 매우 둔감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재가연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승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 하고 나섰다. 혹, 재가자들의 발언이라 해서 무시한다거나 불쾌해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다. 승가의 도덕성 회복은 재가자들의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승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불교라는 빛나는 이름에 걸맞는 스님들은 극히 일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계율을 목적으로 여겨 수행에 정진하고, 포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스님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여전히 승가는 불자들의 귀의처이다. "죄가 있으면 곧 참회하고,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서산대사의 말씀이다.

종비생 의무봉직제 도입

조계종 내년부터 군승·본말사 포교당서 3년 근무

조계종 종비장학생의 의무봉직 제도가 실시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민)은 22일 교육원회의를 개최하고, 2001년 동국대 종비 입학생부터 졸업 후 군승요원이나 중앙종무기관, 본·말사, 포교당에서 3년간 의무봉직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단 종비장학생 관리개선을 의결했다. 의무봉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1년부터 동국대에 입학하는 예비생들은 전원 종단의 수혜에 따른 의무이행각서를 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비장학생 지원 및 기복예비승이 종비장학생으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나, 종비장학생이 향후 수행관(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불교학부를 졸업한다 할지라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는 방침을 정했다. 또 동국대에 입학하는 종단소속 예비승의 종비장학생 편입을 의무화하여 종단관리를 받지 않는 채 독자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종단기본교육 이수 혜택을 받는 것도 차라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앙승가대 입학 학인들도 3년 의무봉직을 할 수 있도록 종비생제도의 보완 및 시행방안 검토를 교육원에 요청했다.

종비생 3년 의무봉직제도가 실시될 경우 중앙종무기관, 본·말사, 일선포교당의 인력난 해결 및 현재 종단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군법사 총원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군불교포교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 종비생은 200여명이 재학중이며, 한 해 50여명이 배출되고 있다. 매년 종단과 동

국대는 종비생 교육 및 생활지원비로 14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천주교 원불교 등의 경우 종립 학교 재학 중 일정정도 학비 및 기숙사비 감면의 혜택을 받고 3~4년간 의무봉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장 계성수님은 "종단 기본교육기관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동국대 종비생 관리제도 개선내용 중 3년 의무봉직제도는 중앙종무기관 및 본·말사, 군법사 파견 등의 필요에 예상된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중앙승가대 학인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계에서 처음으로 계율관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과제가 승가대학을 인가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불교TV 위성방송 참여

내년 10월...산사·동남아로 시청권 확대

영상포교 새전기...광고·수신료 수익 기대

불교TV가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돼 내년 10월부터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는 19일 위성방송사업자로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결정돼 이미 10월에 한국통신과 프로그램공급합의를 체결한 불교TV도 자동적으로 함께 채널권을 얻게 된다. 이는 내년 10월부터는 그동안 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었던

국내 산중 사찰은 물론 일본과 중국 일부지역에서도 불교TV의 시청이 가능해져 영상 포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교TV가 위성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수신료 및 광고 수입도 자연히 따라 붙게 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영상 포교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위성방송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지, 방송

전과를 이용해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접시 안테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불교TV와 같은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가 구비된 접시안테나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지역방송국(SO)에 위성시청료만 별도로 내면 된다.

위성방송이 내년에 방송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서 위성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널 수는 100여개가 된다. 종교·음악·레저·스포츠·게임 등 세분화된 채널을 가족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선택해 골라볼 수 있다. 또 데이터 채널을 통해 인터넷 검색, 홈뱅킹, e메일 등도 서비스 돼 시청자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TV는 자율 경영을 예고하는 수많은 위성채널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승대사의 법문, 한국의 명화 소개, 불교교리강좌 등 포교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는 방송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수덕 불교TV 사장은 "현재의 시설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위성방송 송출 장비와 송출 업무를 담당할 기술 인력만 약간 보강하고 6년간 축적해온 콘텐츠를 활용하면 중부투자 없이도 위성방송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현대만평 박구원

올해 마지막 소원은...

사형폐지 청원서 유엔 제출

145개국 320만명 서명

국내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모임 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주도 아래 시행되고 있는 사형 집행을 전세계적으로 유예(moratorium)해야 한다는 국제청원이 18일 전세계 145개국에서 320만명의 사형폐지 옹호론자들의 서명을 받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됐다.

아난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인권운동가, 국제사면위원회 대표 등이 공동 제출한 사형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접수하고 유엔을 대표해 이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

서명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전세계 종교계 지도자 및 노벨상 수상자 등 각계 각층 저명인사들이 다수 참가했다.

이와 관련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님은 "한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제도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 문제(사형)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라며, "인권 선진국을 영문하는 현 정부에서 하루빨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경주 세계문화유산등록 축하행사

홍보탑 설치·세미나도

경주시(시장 이원식)는 15일 경주시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축하행사(사진)를 개최했다.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할 학술세미나도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의근 경북도지사, 이원식 경주시장, 최규철 동국대 경주캠퍼스부총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시민들은 1995년에 등록된



석굴암에 이어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홍보탑을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등 경주측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최기범 경주시시장

포교사 고시 1차 378명 합격

윤성운씨 수석...3월 품수식

제 6회 포교사고시에 총 응시자 541명중 378명이 1차 합격했다.

이번 포교사 고시에서는 윤성운(동산불교대)씨가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부산불교교육대학이 58명으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정택순(68·동산불교대)씨, 최연소 합격자는 추

민숙(23·불교보건복지대학)씨이며, 남자 247명, 여자 130명이다. 합격자 명단은 buddhanews.com)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부터 11일에 열리는 1차 합격자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포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포교사 품수식은 내년 3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최종합격자 연수 후 열린다.

김원우 기자

불교정보센터 IT사업

사이트 구축·온라인 상담등

불교단체와 사찰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교 정보화(IT)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 NGO 간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대표 신희권, www.budgate.net)는 20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불교정보센터 사이트 개편안 설명회'를 열고, "불교정보센터를 허브포털 사이트로 개편, 내년부터 불교정보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 한 정보화 지원사업은 웹 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단체들의 시스템 내 넷워크 환경에 대한 컨설팅, 온라인 상담을 통한 기술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IT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제작 및 리노베이션 지원, 웹호스팅 지원, 온라인 상담교육 등 네 가지로 축적된 IT 전문인력과 종단 차원의 인프라가 부족한 불교계 현실에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 정보통신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 등을 추구하는 '노동정보화 지원사업단(info.nodong.org)'과 상응한 활동을 펼치면서 불교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연말 연시,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천덕구면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요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가까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집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열어보십시오. 기쁘기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의 임계입니다.

4x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명목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기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 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잘·익·은·생·각·의·집

이양희 시집

B6변형 / 값 7,000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너무 겹겹 내지 않고 늘 진실 편에 서려고 애쓰며 힘들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렇게 시에게 말을 걸다보면 시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넬까 시가 건네오는 첫마디에 부끄럽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일 없으리라.

- 저자의 후기 -

불교·시집·지연을 소재로 한 주옥같은 시, 붓시집들을 하며 지은 시 등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히는 좋은 시들로 가득합니다.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권해봅니다

효림의 자회사 도서출판 여음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주문은 효림으로 하세요.